

5대결사 동참으로 청년불교 도약

부산 흥법사서,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성료... 철야정진으로 심신 고취



(왼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 참석해 청년불자를 격려했다.

전국 2000여 청년불자들이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실천의지를 다지며 부산을 뜨겁게 달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는 6월 11~12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에서 제30차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성료했다. '청년 만해여, 푸른 파도처럼 일어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해 5대 결사 실천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5대 결사 실천안으로는 '청년불자 33대 서원'을 통한 수행결사, '청년호법단' 결성으로 문화결사,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로 생명결사, '만해청년봉사단' 건설과 '무재침시운동' 전개로 나눔

결사, '종교평화위원회'와 '통일위원회' 활동을 통한 평화결사를 제시했다.

대불청 총재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에서 "대불청 초대 총재였던 만해 스님과 조선불교청년회 선배들이 독립이라는 화두로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했다면, 대불청과 청년 불자들은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실천을 화두로 불교 중흥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불청은 김희영 중앙회 자문위원에게 전국불교청년대회 불청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지구상은 서울지구, 최우수지회상 울산경남지구 대우불교청년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은 손영희 조계사 청년회 자문위원, 자랑스런불청 선

배상은 이상번 만해백일장 심사위원이 수상했다.

행사는 축제에 그치지 않았다. 본 대회에 이어 자정부터 이른 새벽 4시까지 정진의 밤 및 아침예불, 회향식을 진행하며 수행정진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수행 프로그램은 사성제를 주제로 '고성제' 108배 정진기도, '집성제' 참선수행, '멸성제' 행선, '도성제' 3300알 염주만들기 등을 통해 심신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정진의 밤에는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진흥사 주지 정범 스님,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반야원 주지 안도 스님이 2000여 청년 불자들의 멘토가 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정범 스님은 "복덕이 공덕으로,

지식이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식에 그친 불교가 아니라 종교적 체험 즉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념으로 내 마음의 염파와 관세음보살의 염파가 통할 수 있도록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제' 멘토인 하림 스님은 "수행은 긴 시간동안 하는 것보다 한 순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좋은 것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것에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이 나빠 보이듯이, 생각이 일어나는 데로 잡으면 내 것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나를 만들고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멸성제' 멘토인 안도 스님은 "행선을 할 때는 들숨과 날숨 호흡 법으로 번뇌를 떨칠 수 있다. 손은 단전 앞에 가지런히 차수하고, 한걸

음 한걸음에 호흡을 느껴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도성제'는 모두의 서원을 담은 3300알 염주를 꿸 것으로 정진의 밤은 마무리됐다. 1인당 3알의 염주를 한 줄의 실에 꿸, '도성제'에 참여한 1000여 명이 모두 완성할 때까지 관세음보살 정경을 했다.

일철 스님은 지도 법문에서 "보통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때 '꼭'은 변함없는 다짐을 뜻한다. 큰 서원 앞에 마장이 들지 않은 마음으로 염을 하며 끼워, 내 마음에 한줌의 불성의 씨앗이 마음을 채우고, 발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음으로는 서원을 염하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라"고 지도했다.

박지원 기자

정우식 회장 "냉정한 참회, 재도약 발원"



우리의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청년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재도약을 천명했다.

"청년 만해여, 푸른 파도처럼 일어나라!"는 청년불자들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는 "청년들이 중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교편향 편협 등을 막아 내지 못했다"며 "청년불교가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기 위해 부처님 법과 창립 정신에 맞게 청년 불자들이 실천하고 있는지 참회하고 발심을 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혜원문화축제' 어울림의 장으로 거듭나다



혜원문화축제에서 진행된 차문화 행사는 부산 지역 10여 사찰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11 혜원문화축제'가 올해 열 돌을 맞으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제10회 혜원문화축제는 혜원(이 사장 원하, 혜원정사 주지) 주최로 6월 10~11일 부산 연산동 혜원정사 일원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차문화축제, 혜원백일장, 혜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차문화축제는 올해로 3번째 열리는 행사로 혜원정사 다인회를 비롯해 부산차문화진흥원(원장 이미지), 능인선원(주지 성각), 대광명사(주지 목중) 등 10여개 다인회에서 약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지원 기자

관음종 부산교구 총무원 개원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흥파) 부산교구 총무원이 6월 14일 문현동 무문 흥법사(주지대행 호

명)에 문을 열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신인 부산교구 총무원장 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관음종 부산교구는 지역 총무원 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출제가 교육 활성화, 지역 신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051) 631-6296

박지원 기자

노우 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장애 극복하며 불교 매력 찾아 불교용품 브랜드 '나란자라' 김도경 대표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줬다.

"마음을 이쪽으로 끌고 가니 이 쪽에 있고, 저쪽으로 끌고 가니 저 쪽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죠. 주변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들 해요."

그날 이후, 집에서 (천수경) (법성계) (지장경) (금강경) 등 경전을 일보일배의 심정으로 사경수행을 시작했다. 평소 솔직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녀였기에 누가 이끄는 데로가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이때 그녀가 배운 것은 거창한 경전공부가 아닌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과정이었다.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불교의 매력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교를 알기 전에는 지금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건강한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다. 모두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김 씨는 "마음을 쉬

"부처님께서 나란자라 강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강가를 거닐며 고뇌하고 아파하는 중생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 답을 해주셨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김도경 씨(33, 범법 묘련)는 부처님의 이름을 단 수공예 불교용품을 만들어 인연이 닿는 이들에게 보시 및 판매한다. 몇 년 전까지 만해도 돈을 벌면 해외여행을 쫓고 돈을 모아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던 모습은 없어졌다. 나를 위한 일보다 이웃을 위한 일이 먼저가 된 김도경 씨를 변화시킨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불교와의 만남이었다.

2007년 가을, 그녀가 스물아홉 살 되던 해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 광대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전신 뼈 32개 이상이 탈골돼 수차례 대수술을 치렀지만 평생 하반신마비로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이라 생각했다. 절망의 나라에 빠져 힘든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한 한 스님에게 염주를 건네받았다.

"염주를 건네받는 순간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며,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를 의지하라[自燃明 法燈明]는 말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잠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죠."

불교와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퇴원 후 절쪽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MP3로 염불을 들으며 무작정 길을 걸었다. 장애를 갖고 살아 가이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발걸음은 어느새

그런 서원을 담아 부처님의 이름을 단 수공예 불교용품 전문점 '나란자라'를 만들어 인연이 닿는 이들에게 보시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 '나란자라' 강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고 내려와 나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그런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제2의 인생길을 걷는 불교용품 브랜드 '나란자라'에 담겨 있다. "부처님 법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최고이듯 불교용품도 최고로 만들어 많은 이들이 불법에 귀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김도경 씨의 결심은 당당하고 힘차 보였다.

http://blog.naver.com/nrzzara

박지원 기자

박지원 기자